

# 중국의 보복...청두 미국 총영사관 폐쇄

###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맞불 미국무부 "중 결정에 유감" 5년만에 처음으로 업무 중단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보복 조치로 폐쇄 요구를 받은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를 기해 완전히 문을 닫았다.

AP 통신과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오전 청두 미 총영사관을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폐쇄했다고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청두 총영사관의 업무를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종료했다면서 중국 측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고 AP는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오전 11시경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을 통해 "중국의 요구에 따라 청두 미 총영사관이 폐쇄됐다"면서 "중국 담당 부문은 이후 총영사관 정문으로 진입해 접수 업무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두 총영사관 내부에는 미국 당국자나 직원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두 미 총영사관은 지난 사흘간 폐쇄 준비를 위해 이삿짐 화물 트럭 5대를 투입했다. 청두 미 총영사관 측은 이날 오전 6시 18분 성조기를 내리면서 총영사관 폐쇄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로써 1985년 문을 연 청두 총영사관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를 중단했다. 미국이 청두 총영사관 폐쇄를 확인했지



중국 쓰촨성 청두 시민들이 26일 휴대전화로 철수 작업이 진행 중인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은 전날 미국 휴스턴의 자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서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만, 아직 청두 총영사관으로 중국 공안 등 공권력 투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공안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청두 미 총영사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중국 매체를 비롯해 주요 외신, 청두 주민 수백 명은 폐쇄 시한인 오전 10시를 전후해 청두 미 총영사관 앞에 모여들었다.

중국 누리꾼들은 폐쇄 시한인 오전 10시가 지나도 중국 공안의 총영사관 진입이 이뤄지지 않자 "어서 서둘러라", "이미 시간이 지났다", "당장 강제로 끌어내라"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두 총영사관은 쓰촨, 윈난, 구이저우, 충칭 등과 함께 신장, 티베트 지역을 관할해 미국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특히 이곳은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 전 총칭시 서기의 실각 사태 당시 미중간 충돌이 벌어진 장소로도 유명하다. 당시 보시라이의 부하였던 왕리전 전 국장이 보시라이와의 다툼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청두 총영사관으로 뛰어들어 망명을 요청했다.

중국 당국이 청두 총영사관을 보복 대상으로 택한 것은 미국의 선제공격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었기 때문이다.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1979년 중국이 미국에 처음 개설한 영사관으로 미중 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

휴스턴은 미중 수교 후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이 휴스턴을 방문해 미국 개척 시대의 문화적 상징인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미중 우호를 과시했던 곳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242〉 금 해릉왕

해릉왕(海陵王, 1122~1161)의 이름은 완안량(完顔亮)으로 금나라 제4대 황제다. 황족과 조정 중신을 대거 처형하는 등 유례없는 잔재 정치를 행했다. 남송 평정에 나섰다가 쿠데타로 시해당한 대표적인 폭군이다.

금 태조 아골타의 서장자인 요왕 종간의 차남이다. 3대 황제인 희종과는 사촌 관계다. 희종을 살해하고 제위에 올랐다. 희종은 정신이상과 과음으로 수많은 종친과 중신을 살해했다. 황비와 비빈도 죽이는 등의 난행 끝에 완안량이 이끄는 쿠데타로 살해당했다. 그는 직접 희종 시해 과정에 참여해 피가 흘려 온 몸이 피투성이였다고 한다.

해릉왕은 중화 문화에 익숙한 교양인이었다. 후진적인 여진 문화 보다 성

의 전통인 원로제와 합외제를 무시하고 황제 독재 권력을 확고히 했다. 황제권의 부차 승계를 당연시 하였다. 종친의 영향력을 차단기 위해 대규모로 종친, 황족을 살해하였다. 남송과의 일전은 불가피한 흐름이었다.

1142년 강화조약을 통해 화하를 경계로 양국의 국경이 정해졌다. 매년은 25만냥, 비단 25만필을 남송으로부터 세공으로 받았다. 그러나 대남송 수입 초과로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선진적인 남송으로부터 차, 약재, 향료 등을 수입했는데 차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컸다. 지리상 회하 이북에서 쌀 농사는 한계가 있었다. 한화 정책으로 여진족의 쌀 소비가 급증했다.

1155년 남송의 화평과 거두인 진회가 죽었다. 대남송 작전 지휘를 위해 개

## 금 4대 황제...쿠데타로 시해 당한 폭군

속된 중원 문화에 심취했다. 그러나 희종과 마찬가지로 전례가 드문 폭군이였다. 1149년 즉위 후 적극적인 한화 노선을 추구했다. 여진족 수장이 아니라 중원 국가의 황제가 되기를 열망했다. 즉위 직후 3가지 조칙을 발표했다. 국가의 대사를 본인이 직접 관장한다. 국가의 미너를 취한다. 세번째 조칙에서 해릉왕의 기이한 품성이 여실히 확인된다. 많은 종친을 죽이고 그 미망인과 딸을 취했다. 황음(黃淫)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상궐을 벗어났다. 상상을 초월한 학살을 계속했다. 1150년 한해에만 재상 종본, 종의 등 150명이 넘는 종친이 살해되었다.

1151년 중원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천도 계획이 발표되었다. 현 하얼빈시 주변에 해당하는 상경 회령부에서 연경(현 베이징)으로의 천도였다. 국도인 연경의 정식 명칭은 중도(中都)였다. 과거 남북조시대 북중국을 지배한 북위의 효문제도 강력한 한화 정책을 위해 대동에서 낙양으로 천도한 것을 연상시킨다. 중원을 다스리고 남송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국도 조정을 위해 동원된 백성에게 일인당 비단 1필을 주었다고 한다. 1153년 3월 중도로 천도했다.

천도 후 해릉왕의 주요 관심사는 황제권 강화 및 남송 정벌이었다. 여진족

붕을 남경으로 부르며 도시 조성에 나섰다. 1159년 남송 토벌의 조정을 내렸다. 맹안모에서 20~50세 장정을 모두 군정에 포함시켰다. 약 60만필의 말을 징발했다. 1161년 6월 남경에 입성했다.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한 까닭에 거란족 등 북방 유목민 세력이 골기했다. 그러나 해릉왕에게는 마이동공격이었다. 서경 유수인 소의충을 거란 토벌에 보냈지만 평정에 실패했다. 배후를 틈튼히 할 목적으로 금에 억류한 요나라와 북송의 왕족을 대거 처형했다. 부친인 종간의 정체가 남송을 간파해 살해했다. 시녀 수십여명도 몰살했다. 군사들의 사기는 형편없었다. 대열을 이탈해 달아나는 군인이 부지기수였다.

해릉왕의 종제인 완안옹이 동경에서 세종으로 즉위했다. 살해 당하기 전에 먼저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사실을 들은 해릉왕은 장강 도하작전을 계속했다. 안휘성 동부인 화주까지 진군했으나 도강에는 실패했다. 남송의 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도강을 서둘러 "3일 만에 도강 못하면 모두 죽인다"고 장수들을 협박했다. 잡다 못한 장수들이 해릉왕을 살해했다. 측근인 완안원의가 쿠데타를 주도했다. 죽은 후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었다. 해릉왕 살해 후 금군은 철수했다. 세종은 남송과의 화의를 도모했다.

## 코로나19 대처에 명운 걸었다...트럼프, 대선 전략 급선회

### "지시율 하락에 캠프 패닉" 백신·치료제 개발 외 카드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지시율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략을 급선회했다.

오는 11월 대선까지 남은 100일 동안 대선 캠페인의 메시지는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라고 인터넷매체 약시오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신·치료제 메시지에 주력하라"는 참모진과 공화당 지도부의 조언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그동안 대규모 유세와 집회를 고수하고 경제활동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

령이 갑작스럽게 공공의료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석 달 만에 코로나19 테스트포스(TF) 브리핑을 재개한 게 시발점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메시지가 부쩍 늘어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런 전략 변화는 지시율 하락에 제동을 걸려는 교육지적으로도 해석된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물론 전통적으로 어느 한 정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승부처인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하는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CNN방송이 18~24일 여론조사기관 SSRS와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3개 경합주(플로리다·애리조나·미시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모두 뒤졌다. /연합뉴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백악관과 트럼프 재선 캠프는 "패닉"에 빠졌다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지시율을 반전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백신·치료제" 외에는 없다는 게 캠프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코로나19 부실대응 논란을 불식하면서 선거 판세를 뒤집겠다는 복안이다.

대립각을 세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NIAID) 소장, 데이비드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TF) 조정관이 "브리핑 무대"에서 빠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전 항체 지속기간은 여전히 미궁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오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백신을 맞아 형성된 항체의 지속기간은 대개 2단계 임상시험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개발에 속도를 내느라 몇몇 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 영국 옥스퍼드대학 등이 개발 중인 백신 후보군은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지만,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지는 알기 이른 단계라는 것이다.

화이자에서 백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필립 도르치처는 "불행히도 지속기간과 면역력을 알아내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815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세 아동 5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로 보금
- 저금리주택 담보대출을 3% 이하로 지원
- 65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 3~4세 아동 5세 이상 서민을 위한 무로 보금
- 65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청단지점 576-4150